

총장 후보들이 본 전남대 주요 현안



정성창 허민 정병석

- 1 학생 감소·국제화 미흡
- 2 불공정 인사·교원 선발
- 3 지역 현안 목소리 부재

오늘 현장평가...최종 2인 선발

'전남대 취업률은 국내 대학 중 40위권 밖으로 고전하고 있다. '코드인사'와 소통 부족으로 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책사업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하고 기획력이 부족하다...'

전남대 총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진단한 대학 현안들이다. 전남대를 둘러싼 주변 교육 환경의 변화 뿐 아니라 수십년간 현장에서 지켜본 지역 국립대 위상과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열악한 지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들 후보들이 지켜본 대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봤다.

◇열악한 교육환경 지표=정성창(59·경영학부) 교수는 "거점 국립대학들에 견줘 중도 탈락 학생들 비율이 높고 대학원 진학률도 저조, 애교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남대의 최근 3년간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은 ▲2014년 3.1% ▲2015년 3.1% ▲2016년 3.2% 등으로 부산대(▲2014년 1.9% ▲2015년 2.2% ▲2016년 2.5%)나 경북대(▲2014년 2.6% ▲2015년 2.9% ▲2016년 2.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취업률 지표와 국제화 여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또 언론사 대학평가 지표를 인용, "외국인 교원비율과 해외과제 교환학생 비율은 최저 수준으로 거점 국립대 위상에 걸맞지 않다"면서 "글로벌 명문대학이라는 비전과 전남대생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대학입학자 감소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대학원 충원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음에도 대학원 교육에 대한 미래 전략도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소통 부재 해소 및 자율성 확보 대책도=허민(55·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편중되고 업무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학장 및 보직자 인사' 문제와 '투명하지 않은 신입교원 선발 절차' 등으로 빚어진 대학 인사 행정의 문제점을 꼽았다. 더 나아가 향후 '6급 이하 직위 인사에 대한 총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보직자 공모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상시제끼 1000원 발상 실현'과 '보육시설 확장 지원' 등의 보육 정책도 지원했다.

그는 또 정부 재정사업 수주 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한편, 대학 자율성 확보 및 지역 국립대의 차별성 확보를 위한 ▲거점국립대 정원 축소 반대 ▲대학 가치에 어긋나는 대학평가 요소 배제 등의 요구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교수는 아울러 '높은 거점국립대 정원 감소율', '취업률 저조로 인한 지역거점국립대 위상 하락'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정책 공약에 담았다.

◇지역 현안에 참여하는 대학 역할도=정병석(58·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실용실장비 구입 비용을 인근 대학 수준(최대 1억원)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임용 5년 이내 신입교수들이 국제과제를 수주할 때까지 기반연구비를 지원하는 한편, 대학원생과 외국인 연구보조원 확보 장구를 대학본부가 상시 운영토록 하겠다는 연구 강화 계획을 제시했다.

'인권도시 광주의 발전 방향'을 비롯, '나주혁신도시 내 연구공원' 개설, '여수국가산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산학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사회 현안과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공약집에 밝혔다.

한편, 전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는 25일 이들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한 뒤 총장임용후보자 2명을 최종 선출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자동화설비공공 학생들이 지난해 글로벌 현장체형 학습을 위해 방문했던 독일에서 실습 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학업·취업 고민 해결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7년 연속 취업률 상승

광주·전남 원서 접수 시작...입학 문의 잇따라

마이스터고인 광주소프트웨어고는 최근 중 3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로 입부를 보기 힘들 정도다. "아이의 적성을 살려 진학시키려 하는데, 어느 정도 성적이면 지원할 수 있느냐", "취업률이 어느 정도냐", "경쟁률이 얼마나 예상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실업자 규모가 사상 처음 30만명을 넘어선 등 극심한 취업난으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녀 진로를 크게 좌우할 고입을 앞둔 중 3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마이스터고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성적이면 지원할 수 있느냐", "취업률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 마이스터고, 24~28일 원서 접수=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

주자동화설비공공(1개교 80명)과 광주소프트웨어(2개교 80명) 마이스터고가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 이달 31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뒤 인적성검사(11월 2일)와 심층면접(11월 8일)을 거쳐 내달 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전남도교육청도 마이스터고인 ▲한국향만물류고(2개교 100명) ▲전남생명과학고(3개교 100명) ▲여수석유화학고(3개교 100명) ▲완도수산고(3개교 80명)의 경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원서를 오는 28일까지 접수받겠다고 24일 밝혔다. 최종 합격자는 내달 11일 발표된다.

◇'기술명장' 육성, 취업률 급등=정부가 고졸자 취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인식도 확대되면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취업률은 상승세다.

특히 '기술명장'을 키우기 위해 산업현

장 맞춤형 교육을 하는 특수목적고인 마이스터고의 경우 우수한 학생이 몰리면서 경쟁률도 치열하다.

광주자동화설비공공의 지난 4월 기준 취업률은 91.1%. 81명 졸업자 중 7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최근 3년간 취업률만 해도 ▲2014년 98.75% ▲2015년 97.37% 등에 달한다. 올해도 한전 16명, 한전KPS 6명, 한국수력원자력 5명, 전력거래소 1명 등의 취업에 성공했다.

내년 첫 신입생을 받는 소프트웨어고도 정부의 육성 방침과 맞물리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지역도 비슷하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지난해 4개 마이스터고 취업률은 ▲여수석유화학고 92.0% ▲완도수산고 79.0% ▲전남생명과학고 92.2% ▲한국향만물류고 91.3% 등이다.

◇취업률 때문에...특성화고도 관심=광주 9개, 전남 43개 특성화고에 대한 원서 접수도 내달 14일부터 시작된다. 특성화고마다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학교의 커리큘럼, 수업 방식이

다양한 점을 감안,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교육부가 올 해 전국 특성화고 472개교와 마이스터고 43개교, 일반고 직업반 77개교(옛 종합고 전문반) 등 직업계고 졸업생 11만4225명을 분석한 결과, 취업률은 47.2%로 지난해 46.6%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2009년 16.7%로 최저점을 찍은 뒤 이후 7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광주·전남도 비슷하다. 광주 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의 경우 ▲2014년 39.7% ▲2015년 41.4% 등으로 상승했고 전남도 ▲2014년 75.7% ▲2015년 77.7% 등으로 올랐다. 광주·전남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다. 다만, 농업인 확인서, 승선증명원, 기업승계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취업자에 포함시키는 지역 특성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인문고생들의 직업찾기 '용진축제'

광주 광일고 27~28일 진학박람회...미용 등 43개 부스 운영

광주 광일고등학교(교장 조영운)는 해마다 가을이면 '용진축제'를 열고 있다. 올해로 22회째 행사가. 지난 2014년부터는 색다른 행사도 함께 열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 지원 사업으로 열리는 진로진학박람회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로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유일하게 개최하는 이벤트다.

진로진학박람회, 동아리발표대회, 한빛캠퍼스송 대회가 함께 어우러진 제 22회 용진축제가 오는 27일~28일까지 광일고

대강당, 소담정원, 운동장에서 열린다. 28일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운동장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43개 부스가 운영된다.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아트, 커피 바리스타, 미술사 3D 프린터, 드론 조종 체험, 직업군인 길라잡이, 자동차 정비, 제과·제빵, 힐링 원예체험, 한식요리, 애완동물 훈련, IT 전문가, 007 나도 경찰, 등 다양한 직업과 관련한 체험 부스다.

또 취업·창업 상담과 관련한 부스도 운영하며 다양한 먹거리도 판매한다.



지난해 열린 진로진학박람회 모습.

제10회 한빛 캠퍼스송 경연대회에서는 김영훈·유승범·고재학 군 등 재학생들이 '사랑합니다', '소망', '행' 등을 부른다. 또

남타 연주, 핸드벨 공연, 우쿠렐레 공연, 사물 연주 등 동아리 발표대회도 진행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변 터널식세차시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평가 12억7천4백 ▶ 최저가 8억9천3백
- ★ [공장] 서구 동천동 상무자동차전문학원인근 공장일지지역 토지 1,226㎡ 건물 322.35㎡ 감평가 12억1천7백 ▶ 최저가 8억5천2백
- ★ [공장] 화순군 이양면 풍평리 농공단지내 12m도로접 토지 6,600㎡ 건물 2,579㎡ 감평가 27억5천3백 ▶ 최저가 12억3천3백
- ★ [공장] 담양읍 삼리리 토지 9,902㎡ 건물 2,921㎡ 예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육가공공장 감평가 44억5천1백 ▶ 최저가 24억9천3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9,178㎡ 건물 5,842㎡ 장성백이사거리 인근 공장지대 감평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5억5천9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5,977㎡ 건물 2,122㎡ 동화사거리부근 공장지대 감평가 13억3천6백 ▶ 최저가 7억4천8백
- ★ [공장]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9,917㎡ 건물 3,989㎡ 대마일반산업단지내 감평가 35억2천7백 ▶ 최저가 19억7천5백

투자 추천 물건

- ★ [공장, 충전소] 광양시 진월면 진월C인근 4차선대로변 토지 12,914㎡ 공장 1,922㎡ LPG충전소 352㎡ 매매 37억5천
- ★ [공장]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제2산업단지내 토지 6,627㎡ 건물 4,226㎡ 매매 19억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정문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상가 28억선 교환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무인텔] 북구 유동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4천만원 이상 수익 위치좋은 매매 20억

수익형 추천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일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요양병원 허가 취득)
- ★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터리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 6억포함) 보증금 7천 월 4백6십 매매 13억5천
- ★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인 토지 5,359㎡ 건물 595.4㎡ 2층공장 매매 평당 2백5십
- ★ 광주 북구 풍암동 6층건물 1층 마트 2~3층 목욕탕 4~6층 원룸 26개, 목욕탕 직영중 보증금 1억1천5백 월 9백7십 매매 18억
- ★ 광주 남구 백운동 왕복5차선도로 버스승강장부근 5층건물 대지 527㎡ 건물 1,221㎡ 보증금 2억 월 1천만 매매 18억
- ★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건물 999㎡ 보증금 1억 월 6백5십 매매 17억

병원, 공장 매매 및 임대 구함 / 광주 근교 토지 급 구함 /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